

AI와 인간 번역의 문체 재현과 독자 반응 연구: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사례를 중심으로

배유진(동국대학교-서울)

김순영(동국대학교-서울)

1. 서론

추리소설에서의 문체는 플롯의 정서적 동력이자 독자의 감정 반응을 조율하는 핵심 요소로서, 특히 ‘누가 범인인가’와 같은 인과적 호기심을 극대화하여 서스펜스를 유발한다(Iwata, 2008). 이러한 문체의 특성은 서술 기법을 넘어, 독자가 작품을 읽는 동안 심리적 긴장과 기대를 형성하고, 작품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개에 몰입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원문의 문체가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보존되고 재현되는지는 독자의 수용 경험과 원작의 완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체적 변형이 독자의 수용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문학 번역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순영(2025)은 애거서 크리스티의 대표 추리소설인 『And Then There Were None』의 원문과 두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문체적 특성이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재현되거나 변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문장 구조와 리듬, 구두점의 시각적 호흡, 그리고 반복과 강조의 재현

방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주목하여, 번역자의 문체적 선택이 작품의 서스펜스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두 번역본은 문체적 전략에 있어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가 독자에게 전달되는 감정적 긴장감과 몰입의 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김순영(2025)의 분석을 출발점으로 하여, 인간 번역자가 선택한 문체 전략이 독자의 감정 반응과 해석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체 전략을 인공지능 번역 모델이 구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번역 시스템은 문학 번역의 자동화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특히 원문의 스타일 보존, 감정 재현, 문체 리듬 유지와 같은 고차원의 번역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체적 장치가 서사적 긴장 구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추리소설 장르에서, AI 번역의 구현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 번역자가 구현한 문체 전략이 AI 번역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번역 문체의 차이가 실제 독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반응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한다. 첫째, 동일한 원문에 대해 인간 번역문과 AI 번역문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이 비교 결과를 토대로 설계한 독자 반응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번역 문체가 독자의 감정 반응과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고찰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번역 텍스트 자체의 문체 분석에 집중하거나 AI 번역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독자 중심의 수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독자의 감정적 몰입, 긴장감 인식, 인물 심리 해석 등 정서적·인지적 반응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번역 문체와 독자 반응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이러한 시도는 AI 번역의 문학 번역 적용 가능성을 정교하게 진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추리소설이라는 특정 장르에서 문체가 갖는 기능적 의미를 수용자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독자 반응 연구

독자 반응 이론은 독자가 독서하고 수용하는 시각에서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문학 비평이론이다(한위성, 2017, p. 277). 다시 말해, 문학작품의 의미가 독자에 의해 형성된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한 문학 이론 중 하나로서, 작가나 작품보다는 독자의 반응과 해석에 중점을 두는 문학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소개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Fish, 1980; Holland, 1975; Iser, 1978; Rosenblatt, 1938). 이저(Iser, 1978)는 문학 텍스트가 독자의 감정 교류와 능동적인 개입을 통해 비로소 의미가 완성되는 상호작용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특히, 텍스트에 남겨진 공백이 독자의 해석과 상상을 통해 능동적으로 메워질 때 문학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로젠블랫(Rosenblatt, 1978)의 이론과도 접점이 있는데, 그는 독서 행위 자체를 독자와 텍스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거래로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미와 감정을 형성하는 미학적(aesthetic)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피쉬(Fish, 1980)는 독자의 해석이 개인적인 주관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동체의 규범과 전략 안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제시하며, 독자 반응 연구를 사회적 차원의 논의로 확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독자의 능동적 역할과 반응 양상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번역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독자 반응 연구로는 강경이(2016)가 번역된 한국문학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 독자들의 온라인 서평을 분석하여, 독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의미를 구성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검토한 바 있다. 또한, 강민규(2020)는 독자의 경험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학 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독자 반응 이론들은 문학 텍스트를 고정된 의미 구조가 아닌,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역동적 담화체로 인식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독자의 능동적 개입과 심리적 참여가 극대화되는 장르인 추리소설은 독자 반응 이론의 적용에 매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리소설은 의도적으로 삽입된 공백과 단서들을 통해 독자에게 끊임없이 추론과 상상을 요구하며, 인물들의 미묘한 심리 묘사와 예측 불가능한 반전은 독자의 감정적 몰입과 긴장감 인식을 고조시킨다. 여기서, 문체는 독자의 능동적 추론 및 감정적 몰입을 유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특히 번역된 텍스트에서 그 기능적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번역에서 문체의 차이는 어휘 선택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독자가 인물의 심리나 이야기 전개를 해석하는 방식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번역된 문체가 원문의 감정 곡선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면 독자의 감정 반응 강도 및 몰입도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최근 독자 반응 연구가 독자의 감정 경험이 번역 방식이나 매체의 형식 등 텍스트 외적인 요소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경향으로까지 확장된 것(House, 2015)과도 맥을 같이 한다.

2.2 문학 번역에서의 AI 번역

심층 학습 기반의 신경망 기계 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 모델의 등장은 문학 텍스트의 번역이라는 창조적 작업에 AI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특히, 챗GPT와 같은 최신 생성형 AI 기반 번역 시스템은 사용자 프롬프트(prompt)와 상황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문체를 조절하고 감정 표현을 변형하는 등 부분적인 문체 번역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토랄 외(Toral et al., 2020)는 영어-카탈로니아어 소설 번역에 특화된 NMT 시스템을 개발하여 100만 문장쌍 이상의 대용량 코퍼스로 훈련시켜, 기존의 통계기반(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SMT) 및 순환 신경망 기반(Recurrent Neural Network, RNN) 시스템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동 평가(BLUE 점수)와 인간 평가 모두에서 NMT 특화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 특히 문장 길이에 상관없이 번역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문맥의 일관성에서도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인간 번역과의 비교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AI 번역이 인간 번역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 외 다수의 문장에서 은유, 간접화법, 원문 고유의 문체 재현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문

장 단위를 넘는 담화적 연결(cohesion)에서 부족한 성능을 보였다.

마승혜(2025)는 문학작품 중에서도 예술성과 해석의 여지가 큰 시 텍스트 번역에 챗GPT를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챗GPT 기반 번역이 운율, 상징, 정서적 긴장감과 같은 시의 본질적 요소를 정확히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며, 이를 통해 시 번역이 단순한 문장 이해와 전환만으로는 원문이 지닌 함축적 의미와 정서적 깊이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구간에서 AI 번역이 인간 번역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을 제시한 사례도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챗GPT 기반 번역이 문학 번역에서 일정 부분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정길화(2024)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정길화는 세계문학을 AI로 번역할 시, 국가 및 문화별 고유한 서사 구조와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원문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평면적인 번역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비판하였다. AI 번역의 신속성과 접근성은 인정하지만, 문화 간 이해와 해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문학작품에서는 인간 번역자의 개입이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AI 번역과 인간 번역의 협업 체계 구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AI 번역이 문학 텍스트에서 일정 부분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문체적 재현과 정서적 감응이 필수적인 장르에서는 독자의 해석과 반응을 중심으로 그 성능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특히, 추리소설과 같은 장르는 서사의 흐름 속에서 긴장감과 몰입감을 유발하고, 복선과 반전, 상징과 암시 등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 독자의 정서 및 해석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번역 시 문체의 미묘한 차이가 독자 경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I 번역이 이러한 추리적 서사 구조에 내재된 정서적·문체적 특수성을 얼마나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독자에게 어떻게 체감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은 AI 기반 문학 번역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만한 핵심 주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2.3 문체 재현과 독자 수용 분석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자 반응 연구와 문학 번역에서의 AI 번역 연구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다. 독자 반응 연구는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문학적 의미 형성 과정을 탐구하며, 독자의 감정적·인지적 경험이 작품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AI 번역 연구는 최신 신경망 기계번역 기술과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하여 문학 번역의 자동화 가능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연구 흐름은 주제적 연관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문체 재현과 독자 수용을 동시에 분석한 통합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AI 번역 연구는 문체적 효과의 재현 여부를 원문-번역문 간 비교를 통해 검토하는 데 그쳤으며, 이러한 문체적 차이가 실제 독자의 감정 반응이나 해석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부족하다. 반대로, 독자 반응 연구는 주로 인간 번역 텍스트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AI 번역의 문체적 특성과 그 수용 효과를 함께 검토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러한 공백은 특히 추리소설과 같은 장르문학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추리소설은 사건 전개 과정에서 독자에게 지속적인 추론과 긴장을 요구하며, 복선·반전·암시 등의 장치를 통해 몰입과 감정적 반응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문체는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라 서사적 긴장을 구성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번역 과정에서의 문체적 변형은 서스펜스의 강도, 인물 심리의 해석, 독자의 몰입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번역이 이러한 장르 특유의 문체적 장치를 얼마나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독자에게 어떻게 체감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AI 번역과 인간 번역의 문체 재현 양상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독자 반응과 연결함으로써 문체와 수용 간의 상호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AI 번역의 문학적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 문체적 구현이 독자 반응에 미치는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원문과 인간 번역문, 그리고 AI 번역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을 분석한 뒤 독자 반응 데이터를 수집·검토한다. 연구 설계는 비교 텍스트 분석, 독자 반응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합하여 진행하며, 이를 통해 문체 재현과 독자 수용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3.1 분석 텍스트

본 연구의 분석 텍스트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And Then There Were None』(1939)을 원전으로 한 한국어 번역본 2종, 그리고 챗GPT를 활용한 AI 번역본이다. 김순영(2025)이 제시한 원문과 두 번역본의 비교 예시를 출발점으로 삼되,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AI 번역본을 추가하여 인간과 AI 번역의 문체 재현 양상을 비교·검토한다. 김순영의 연구가 인간 번역본 간의 문체적 구현과 서스펜스 재현 양상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추리소설의 장르적 문체와 서사 장치가 AI 번역에서 어떻게 구현·조정되는지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동일 장면에 대한 독자 반응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분석함으로써, 번역 전략과 수용 효과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고립된 섬에서 벌어지는 연쇄 살인을 다룬 내용으로, 짧고 단절된 문장, 구두점의 전략적 사용, 반복과 강조 등 문체적 장치가 서스펜스 형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한다. 두 개의 인간 번역본 중 첫 번째 번역본은 1984년 해문출판사에서 출판한 이가형의 번역으로, 단문 위주의 배열과 시각적 구두점 재현을 통해 원문의 감정 리듬을 비교적 충실히 살리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번역본은 2013년 황금가지에서 출판한 김남주의 번역으로, 보다 정제된 문장과 설명적 어조를 통해 현대 독자를 겨냥한 친화성을 드러냈으나, 이로 인해 일부 문장에서 원문의 긴장감이 완화된다는 비판이 있다. AI 번역본은 OpenAI ChatGPT(GPT-4o)로 2025년 4월 20일에 생성하였다. 일

력은 원문 장면을 단락 및 구두점을 포함하여 그대로 제시하고, ‘문학적 긴장감과 정서적 리듬을 최대한 재현하라!’고 명시한 동일 프롬프트를 전 장면에 일괄 적용하였다. 이하부터는 편의상 세 번역본을 각각 A(이가형, 1984), B(김남주, 2013), C(챗GPT 번역본)로 지칭한다.

분석 구간은 김순영(2025)이 제시한 원문과 두 한국어 번역본 가운데, 다음 세 가지 범주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장면 세 곳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베라가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절 길이와 구문 배열이 리듬을 형성하며 독자의 심리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대표한다. 둘째, 베라가 올가미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구두점의 점증적 활용과 호흡 단위의 미세한 분절이 인물의 불안 고조 및 내적 균형의 붕괴를 단계적으로 드러낸다. 셋째, 워그레이브 판사의 범죄 고백 장면으로, 반복 어휘와 병렬 구문이 핵심 단서의 재노출과 단정적 어조를 강화하며 서스펜스 효과를 극대화한다.

다음에 제시한 장면별 발췌 내용은 본 연구의 분석에 직접 사용한 핵심 구간으로 문체 장치가 특히 두드러진 부분만을 보여준다. 전체 대조 자료는 분량 관계상 부록2)에 첨부하였다.

<장면 1>

원문: Vera smiled. Of course! This was Soldier Island!

She went and sat again by the window looking out to sea.

How big the sea was!

번역문A: 베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이곳은 인디언 섬이야! 그녀는 다시 창가로 가서 바다를 내다보며 창문 옆에 앉았다. 아, 정말 넓은 바다야! (이가형역, p. 37)

번역문B: 베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여기가 바로 병정 섬이었다! 그녀는 다시 창가로 가서 앉아 바다를 내다보았다.

바다는 얼마나 넓은가! (김남주역, p. 44)

1) 다음은 연구자가 챗GPT 프롬프트에 입력한 실제 문장이다. “Consider the plot of Agatha Christie's novel *And Then There Were None* and translate it into Korean using the most natural language possible to maintain the suspense and emotional tension of a detective story”

2) <부록 1> 독자 대상 설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역문C: 베라가 미소 지었다. 그래, 맞아. 여긴 바로 솔저 아일랜드잖아. 그녀는 다시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바다는 참 넓었다. (챗GPT)

<장면 2>

원문: What was that—hanging from the hook in the ceiling? A rope with a noose all ready?

번역문 A: 저건 무엇일까—? 천장의 고리에 걸려 있는 저것? 목매달 올가미가 달려 있는 밧줄이잖아? (이가형역, p.244)

번역문 B: 천장 갈고리에 늘어진, 저건 대체 뭐란 말인가? 올가미?
(김남주역, p. 295)

번역문 C: 저게 뭐지? 천장 갈고리에 매달려 있는 건...? (챗GPT)

<장면 3>

원문: ‘They’re going mad...They’ll all go mad...Afraid of death...we’re all afraid of death...I’m afraid of death...Yes, but that doesn’t stop death coming...’

번역문 A: ‘저 사람들은 미쳐 가고 있어.....모두들 미쳐 버릴 거야.....죽음의 두려움.....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나도 죽음이 두려워.....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이가형역, p.194)

번역문 B: ‘모두 미쳐 가고 있어. 모두 미쳐 버릴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나도 두려워.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

(김남주역, p. 235)

번역문 C: ‘모두가...완전히 미쳐버릴 거야. 죽는 게 무서운 거야. 우린 다 죽음이 두려워...나도 그래. 두렵지....하지만...그렇다고 죽음이 오는 걸 막을 순 없지.’ (챗GPT)

이처럼, 서스펜스 구현에 핵심적인 장면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본 연구가 제시한 문체 분석 범주와 독자 반응 측정 목표에 부합하는 심층적 검토가 가능해진다. 세 번역본을 교차 비교하여 각 구간의 문체적 특징이 어떻게 재현·변형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통해 인간 번역과 AI 번역의 전략적 경향을 파악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체적 차이가 독자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 기반으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문학 번역에서 문체 재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독자 수용의 관점에서 AI 번역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할 토대를 마련한다.

3.2 독자 반응 설문 설계 및 분석

본 연구는 번역본 간의 미세한 문체 차이가 독자의 감정 반응 강도와 텍스트 해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문학 텍스트가 가진 문체의 특징 자체만으로는 독자가 실제로 글을 읽을 때 경험하는 총체적 감정이나 효과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독자가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서스펜스와 같은 복합적인 정서 반응이 형성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번역자가 어떤 문체적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추리소설의 경우, 서스펜스는 문장 구조, 구두점, 반복과 같은 미시적인 문체 장치와 독자의 인지적 처리 및 정서적 반응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번역본 간 문체 차이가 독자 경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자 반응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설문은 국내 대학 재학생 86명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³⁾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추리 서사물과 번역 문학의 주요 소비층 중 하나인 대학생 집단은 한국어 읽기 능력과 독서 경험이 비교적 균질하고, 문체적 장치에 대한 이해가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설계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잠재적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 서두에 작품 및 장르에 관한 사전 친숙도 문항을 배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후 독자의 선호가 번역의 문체적 특징에 따른 것인지, 혹은 사전 노출이나 장르 경험으로 인한 기대 효과인지를 구분하여 결과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설문에서는 동일한 원문 구간을 바탕으로 만든 세 가지

3)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적합한 대상, 즉 연구 목적 달성에 유용한 대상들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박원우 외, 2010).

번역문(A, B, C)을 함께 제시하고, 독자가 실제로 읽는 과정에서 어느 번역이 장면의 감정 흐름과 분위기를 더 또렷하게 전달한다고 느꼈는지 먼저 질문하였다. 이어서, 문장을 읽어나가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멈춤과 이어짐, 호흡의 길이와 같은 읽기 경험을 기준으로, 어떤 번역에서 긴장감이 더 크게 형성되었는지 판단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같은 말이나 표현이 되풀이되는 대목이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그 반복이 이야기의 핵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떠올리게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번역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게 느껴진 것을 고르게 하였다. 각 선택 뒤에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자유롭게 서술하게 하여, 단순한 선호 표시를 넘어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함께 수집하였다.

응답 과정에서 번역이 인간 번역인지 AI 번역인지를 밝히지 않고 A, B, C라는 라벨만 제공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독자들이 번역물의 출처에 대한 선입견 없이 오직 텍스트 자체의 문체적 특징과 내용에 기반하여 반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설문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또한, 장면의 제시 순서는 무작위로 배열해 순서 효과를 줄였고, 설문 말미에는 독자가 AI 번역이라고 추정한 항목이 있었는지와 그 이유를 추가로 기록하게 하여, 번역 유형에 대한 직관이 앞선 선택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설문 데이터는 각 번역문(A, B, C)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전체 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어떤 번역문에 더 공감하고 선호하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자들이 특정 번역문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나 AI 번역이라고 추정한 근거 등 자유롭게 서술한 주관식 답변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며, 그 안에 담긴 공통적인 생각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 초반에 제시한 작품 및 장르 친숙도 문항의 응답을 참고하여, 독자들의 친숙도에 따른 번역문 반응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독자 반응 설문 설계는 번역본 간의 문체적 차이가 독자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설문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다양한 통제 장치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독자 반응의 본질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3 전문가 인터뷰 설계 및 분석

본 연구는 독자 반응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과 문학 번역 평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특히, 독자들이 보인 번역문 선호도와 그 이유, 그리고 AI 번역에 대한 반응 등 설문 결과에 나타난 주요 경향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터뷰에는 통번역학을 전공한 4인의 대학교수가 참여하였다. 문학 번역 이론 및 실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번역 교육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 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비판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하였고, 86명의 독자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와 실제 문항지를 함께 제공하였다. 인터뷰 문항은 설문 결과의 주요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전문가로서 해당 결과에 대한 공감 여부, 해석, 그리고 문학 번역의 특성과 AI 번역의 활용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수집된 전문가 인터뷰 응답은 질적 내용 분석 방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해 정리한다. 먼저, 4인 전문가의 개별 답변 텍스트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 설문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과 상이한 관점을 식별하며, 나아가 해당 답변에서 새롭게 도출되는 학술적 통찰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 반응 설문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학 번역의 복합적인 특징이 드러나고, AI 기술이 문학 번역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견해를 종합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분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설문 기반 조사와 심층 인터뷰에서 수집한 자료를 상호 보

완적으로 통합하여, AI와 인간 번역의 문체 비교와 독자 반응을 각각도로 해석해보았다. 먼저, 설문의 객관식□척도형 문항에서 나타난 선호의 분포와 문항별 차이를 기술하고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독자가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 서술을 사례별로 정독하여 귀납적으로 범주화하고, 모든 문항에서 일관되게 AI 또는 인간 번역을 선택한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에서 제기된 해석을 위의 결과와 교차 대조하여 선호가 형성되는 배경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연구 질문에 답하고, 문체 비교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4.1 설문조사 결과 분석

먼저, 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설문 참여자의 배경을 먼저 다루어 결과 해석의 맥락을 제공하고, 이어서 각 문항별 데이터를 분석 및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독자의 전반적인 선호 경향에 대한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4.1.1 설문 참여자 배경 및 문학 경험

설문 참여자들의 해당 소설 및 추리소설 장르에 대한 사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포함한 문항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대상 소설인 『And Then There Were None(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읽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1번 문항)에 전체 독자 중 6명(7%)만이 ‘읽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80명(93%)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독자들이 해당 소설이나 특정 번역본에 대한 사전정보·선입견 없이 제시된 번역문을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번역문 선호도 분석은 원전 인지도와 과거 독서 경험의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번역 자체의 문체적 특성에 대한 순수한 독자 반응을 확보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추리소설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에 대한 질문(2번 문항)에 ‘매우 자주’ 읽는다고 답한 독자는 3명(3%), ‘가끔’ 읽는다는 32명(37%), ‘거의 안 읽음’은 32명(37%), ‘전혀 안 읽음’은 19명(22%)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넘는 설문 참여자가 추리소설을 거의 읽지 않거나 전혀 읽지 않는다고 응답해, 설

문 표본은 장르 전문 독자라기보다 일반 독자층에 가깝다. 이러한 독자 구성은 평가 기준이 특정 장르에 대한 전문적인 비평 기준보다는 가독성, 이해도, 번역문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같은 일반적 지표에 더 기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4.1.2 문항별 결과 해석 및 논의

다음 <표 1>은 문장 구조와 리듬, 구두점 및 시각적 호흡 조절, 반복과 강조의 재현 방식이라는 세 가지 주요 문체적 특성에 따라 독자들이 선호한 번역본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각 문항은 해당 문체 요소를 대표하는 원문 발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AI 번역본과 두 종류의 인간 번역본 중 독자들이 선호하는 번역본이 어느 쪽인지를 백분율로 나타냈다.

표 1
문체 특성별 독자 선호도 분포

문항	문체 특성	AI 번역본(%)	이가형(%)	김남주(%)
3	문장 구조와 리듬	52.3	26.7	18.6
4	구두점 및 시각적 호흡 조절	59.3	18.6	20.9
5	반복과 강조	45.3	23.2	27.9

(백분율은 유효응답 기준임)

위 표는 각 문항별로 독자들이 가장 선호한 번역본의 비율을 나타낸다. 백분율은 유효응답 기준이고, 일부 문항에서 ‘모르겠음’ 응답(최대 3.4%)이 발생하여 선호 비교에서는 제외하였다.

3번 문항에서는 독자의 절반 이상(52.3%)이 AI 번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문장 구조와 리듬의 재현에 있어, AI 번역이 독자들에게 비교적 명확하고 정돈된 느낌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복잡하거나 긴 문장도 AI 번역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가형과 김남주 번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원문의 문학적 리듬이나 호흡을 살리기 위해 시도한 번역이 모든 독자에게 통일된 가독성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AI 번역은 데이터 기반의 패턴 학습을 통해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문장 구조를 생성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독자들이 ‘문장 구조와 리듬’에서 직관적인 가독성을 중시했다면, AI 번역의 기계적인 정확성과 정형성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반면, 인간 번역은 번역가 개인의 스타일과 해석이 반영되므로, 일부 독자에게는 원문의 미묘한 뉘앙스를 잘 전달했을 수 있으나, 또 다른 독자에게는 익숙하지 않거나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자들이 번역문에서 추구하는 읽는 맛의 기준이 다양하며, AI 번역이 가진 효율성이 특정 문체적 요소에서는 인간 번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번 문항에서는 AI 번역이 59.3%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이 수치는 세 문항 중 AI 번역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구두점은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독서의 호흡을 조절하는 중요한 문체적 요소이다. AI 번역이 구두점 사용에서 일관된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텍스트를 안정적으로 읽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구두점은 인간 번역자들이 원문 의도 재현을 위해 유연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 선택이 독자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읽혔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두점은 비교적 명확한 규칙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 AI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적용하기에 용이한 영역이다. AI 번역이 정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독자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혼란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구두점의 규칙적인 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을 나타낸다. 인간 번역자들은 구두점을 통해 감정의 고조나 시각적 효과를 의도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독자에 따라 다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텍스트의 시각적 명료성과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독자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AI 번역이 이러한 요구를 잘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5번 문항에서도 AI 번역이 45.3%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앞선 문항들에 비해서는 선호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특히, 김남주 번역이 27.9%로 이가형의 번역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AI 번역과의 격차를 좁

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복과 강조’는 문학 텍스트에서 감정의 심화, 특정 의미의 부각, 또는 운율감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AI 번역은 이러한 요소를 직관적으로 재현하는 데 강점을 보였을 수 있으나, 미묘한 뉘앙스나 문학적 의도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김남주 번역이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얻은 것은 반복과 강조의 문학적, 정서적 효과를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복과 강조는 단순히 특정 단어나 구문의 반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유발되는 정서적 공명이나 문학적 효과가 중요한 문체적 요소이다. AI는 반복 자체를 인식하고 재현할 수 있지만, 그 반복이 가진 미학적 의도나 감정적 깊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전달했는지는 의문이다. 김남주 번역의 선호도 상승은 이러한 문학적, 정서적 측면에서 인간 번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독자들이 AI 번역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인간 번역에서 찾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AI 번역이 규칙적이고 형식적인 문체 요소를 재현하는 데는 강하지만, 문학적 깊이와 정서적 표현을 요구하는 영역에서는 인간 번역과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따라서, 향후 AI 번역 기술이 단순히 의미 전달을 넘어 문학적 감성을 얼마나 포착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4.1.3 독자 선호 경향에 대한 종합 논의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독자들은 번역문의 명확성, 가독성, 일관성이 문장 구조 및 구두점 측면에 있어서 AI 번역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AI 번역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통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문체 패턴을 적용하는 데 능숙하며, 이는 독자들이 빠르고 쉽게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소설이나 장르에 대한 사전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 독자층의 특성이 이러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반복과 강조와 같이 원문의 미학적, 감성적 의도를 섬세하게 재현해야 하는 문체 요소에서는 AI 번역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인간 번역본의 선호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독자들이 단순히 의미

를 전달받는 것을 넘어, 텍스트가 지닌 문학적 감동이나 예술적 가치를 번역문을 통해 경험하고자 할 때, 인간 번역의 섬세한 재현 능력을 더욱 높이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AI 번역은 문체의 효율적이고 규칙적인 측면을 재현하는 데 강력한 도구이지만, 문학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정서적 깊이, 미묘한 뉘앙스, 독자의 감정적 공명을 이끌어내는 문체적 선택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간 번역의 역할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AI와 인간 번역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역설한다.

4.2 전문가 인터뷰 분석 및 교차 검증

본 연구에서의 전문가 인터뷰는 통번역학 전공 교수 4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도출된 주요 견해를 분석한 결과이다.

4.2.1 전문가 인터뷰 주요 내용

전문가 인터뷰는 AI 번역본과 인간 번역본 간 문체적 차이에 관한 독자 반응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각 전문가의 입장에서 번역본에 대한 평가와 AI 번역의 장단점, 그리고 문학 번역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전문가들은 AI 번역이 문장 흐름 및 긴장감 표현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추리소설 장르의 특성인 짧은 문장과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리듬의 반복이 AI 번역에 의해 효과적으로 재현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AI 번역은 문장 길이를 짧게 유지하여 독자의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긴박감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 측면이 있었지만, 원문과의 세밀한 비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다음은 전문가 A의 답변 일부이다.

4번 문항에서 사례로 추출한 번역을 비교해보면 AI 번역은 “저게 뭐지? 천장 갈고리에 매달려 있는 건? 올라가기가 묶인 밧줄 이라고 번역하여 문장을 짧게 구성하는 반면, 인간 번역은 “저건 무엇일까? 천장의

고리에 걸려 있는 저것? 목 매달 올라가미가 달려 있는 밧줄이잖아? 또는 “천장 깔고리에 늘어진, 저건 대체 뭐란 말인가? 올라가미? 처럼 문장을 다소 길고 다양하게 구성한다. (전문가 A, 서면, 2025. 6. 28)

위의 지적과 같이 인물의 내적 독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방식은 인간 번역에서 더 잘 재현되는 반면, 장면의 긴장감과 긴박함을 즉시 전달하는 데에는 기계적으로 간결하게 처리한 AI 번역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AI 번역은 감정의 반복적 강조나 미묘한 정서 변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간 번역자들은 원문의 문체적 아름다움과 정서적 깊이를 살리기 위해 문장 구조를 다양화하고, 어미를 변화시키거나 특정 부분을 재구성하는 등 창의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반면, AI는 더 기계적이고 단조로운 반복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B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5번 문항에서 AI 번역본의 경우 중간에 익숙하지 않은 기호인 ‘— (em dash)’의 사용 혹은 불필요한 줄 바꿈(line break)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독자 수용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는 한국어에서 문장 간 응집력(cohesion)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현의 반복을 충실히 반영한 AI 번역이 오히려 독자에게 어색함을 줄 수 있다. (전문가 B, 서면, 2025. 6. 26)

즉, 인간 번역자들은 반복을 다양화하거나 문장 구조를 변화시켜 자연스럽게 전달하려는 양상이 있는 반면, AI는 원문의 반복을 직역하는 경향이 있어 문체적 효과가 다소 제약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번역의 질을 평가할 때는 문장 길이만이 아니라 어휘 선택, 반복 장치의 처리, 문장 재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감정 표현이 중요한 문학 구간에서는 인간 번역자의 창의적 개입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음은, 추리소설 장르의 특성과 AI 번역과의 적합성 부분에 대한 평가이다. 추리소설은 일반적으로 문장이 짧고, 정보의 지연과 긴박감 조성, 긴장과 해소가 반복되는 리듬을 통해 서스펜스를 만들어낸다. AI는 대규모 테

이터에 기반한 대중적 글쓰기 양식에 익숙하며, 짧고 명료한 문장 구성과 리듬을 효과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원문의 문장 배열과 표현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도 긴장감을 전달하는 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원문의 문장 배열과 표현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본 사례들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사건 묘사나 구체적인 상황 설명, 감정의 미묘한 변화와 반복적 정서 강조는 AI가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거나 어색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인간 번역자의 해석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이번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추리소설처럼 문장이 비교적 짧고 긴장감이 완결된 리듬을 통해 서스펜스를 형성하는 장르에서는 AI 번역이 원문을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감정의 미세한 기록, 반복적 정서 강조, 사건의 묘사처럼 섬세한 문학적 장치가 관건인 부분에서는 인간 번역자의 세심한 판단과 창의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AI를 실무에 도입할 때에는 프롬프트 개선, 후편집 지침 마련, 원문-번역문 병행 비교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감정 흐름과 문체를 지켜야 하며, 창작자의 권리 및 AI 관련 저작권 문제도 학계 차원에서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2.2 설문조사 결과와의 교차 검증

본 절에서는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인터뷰에서 도출된 의견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AI 번역과 인간 번역의 문체적 특성에 대한 독자 및 전문가 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분석 방법의 상호 보완성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견해 모두에서 AI 번역이 문장 구조와 리듬, 그리고 구두점 사용에 있어 명확성 및 일관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AI 번역본이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하였으며, 전문가들 역시 AI가 추리소설의 짧고 긴박한 문장 흐름과 반복적인 리듬을 효과적으로 재현했다고 진단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AI 번역이 통계적 학습에 기반하여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문장 패

턴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반복과 강조의 문체적 요소에서는 전문가들과 독자들의 인식이 다소 엇갈렸다. 설문조사에서는 인간 번역본, 특히 김남주 번역본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AI 번역은 반복 표면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문학적 감정의 미묘한 층위를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독자들은 문학 텍스트의 섬세한 감성 전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전문가들은 AI가 반복 표현을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경향이 있어 문체적 자연스러움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구두점 및 시각적 호흡 조절 부분에서는 AI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두점 사용이 독자의 안정적인 독서 경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설문과 인터뷰 모두에서 일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간 번역자들이 의도하는 감정 고조나 문체적 변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독자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점이 번역의 개별성과 예술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종합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는 AI 번역과 인간 번역이 각각 문체 구현의 측면에서 다른 강점과 한계를 가지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통계적이고 규칙적인 문장 구성과 구두점 사용에서는 AI가 높은 효율성을 보이나, 문학적 감성 및 다층적 의미 전달에서는 인간 번역의 창의성과 섬세함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차 검증 결과는 AI 기반 번역 기술의 발전 방향과 문학 번역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방향 제시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독자와 전문가의 다각적 관점을 통합하여, AI가 문체적 감성을 보다 정교하게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이론적 성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 번역가의 독창적 해석과 창의성이 AI 번역과의 협력적 발전을 통해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학제 간 접근도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AI 번역본과 인간 번역본의 문체적 차이를 독자 반응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합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문장 구조와 리듬, 구두점 및 시각적 호흡 조절, 반복과 강조의 재현 방식 등 핵심 문체 요소에서 AI와 인간 번역이 보이는 강점과 한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AI 번역은 문장 구조 및 리듬, 구두점 활용과 같은 형식적·규칙적 차원의 문체 재현에서 높은 가독성과 명확성을 제공하며, 일정 수준의 긴장감과 호흡 조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인간 번역은 반복과 강조 등 정서적 뉘앙스와 문학적 감응이 요구되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얻었고, 독자들이 문학적 감동과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경험하는 데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즉, AI는 형식적 일관성에서, 인간 번역은 정서적 측면에서 강점을 드러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AI 번역과 인간 번역의 문체 차이를 독자 수용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AI 번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설문 데이터와 전문가 견해의 교차 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의 깊이를 제고하였으며, 현장 전문가의 통찰을 반영한 다층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우선, 표본 규모가 제한적이고, 분석 대상이 추리소설에 국한되어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AI 번역은 챗GPT에 기반한 특정 모델 한정이기 때문에, 다른 AI 시스템이나 최신 버전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문 설계 시 최대한 객관적인 응답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설문 참여자의 사전 경험이나 개별 해석 편향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장르와 대규모 표본을 통해 결과를 검증·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번역 기술이 문학적 감성과 같은 섬세한 측면을 얼마나 정교하게 포착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위해 질적 연구와 인지적 분석을 병행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AI와 인간 번역의 강점과 한계를 바탕으로, 두 부분이 상

호 보완적으로 협력하여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번역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이. (2016). 한국번역문학에 대한 중국 현지 독자들의 반응 연구: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의 온라인 독자서평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7-31.
- 강민규. (2020). 문학교육 연구에서 독자 반응 이론의 행방(行方)과 향방(向方): 1985년 이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6, 33-72.
- 김순영. (2025). 추리소설 번역의 문체와 서스펜스 재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두 한국어 번역본 비교. 통번역학연구, 29(2), 119-144.
- 마승혜. (2025). AI 시 번역, 어디까지 가능한가: 『날개 환상통』 번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5(6), 699-707.
- 박원우, 손승연, 박해신, 박혜상. (2010). 적정 표본크기(sample size) 결정을 위한 제언. 노사관계연구, 21, 51-85.
- 정길화. (2024). AI 자동 기계번역과 세계 문학 등에서의 번역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68, 103-135.
- 한위성. (2017). 독자반응이론에서 본 문학 번역의 의미 구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7, 277-294.
- Christie, A. (2003). *And then there were none*. HarperCollins. (Original work published 1939).
- Christie, A. (1984).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가형 역. 해문출판사.
- Christie, A. (2013).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김남주 역. 황금가지.
- Fish, S. (1980).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Harvard University Press.
- Holland, N. (1975). *5 Readers reading*. Yale University Press.
- House, J. (2015).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Past and present*. Routledge.
- Iser, W. (1978).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Johns

- Hopkins University Press.
- Iwata, Y. (2008). *Creating suspense and surprise in short literary fiction: A stylistic and narratological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irmingham, Edgbaston, Birmingham, UK.
- Rosenblatt, L. (1995). *Literature as exploration*.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Original work published 1938).
- Toral, A., Oliver, A. & Ribas Ballestín, P. (2020). Machine Translation of Novels in the Age of Transformer. In Jörg Porsiel (Ed.), *Maschinelle Übersetzung für Übersetzungsprofis* (pp. 276-295). BDÜ Fachverlag.

<부록 1> 독자 대상 설문지

본 설문은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의 다양한 한국어 번역문을 비교하여 감정 표현 및 서스펜스 효과가 독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입니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번역(ChatGPT)이 문학 작품에서 인간 번역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문항에는 서로 다른 번역문(A, B, C)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의 원문은 동일하며 A, B, C 중 어떤 번역이 더 몰입감을 주었는지, 감정이나 긴장감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된 번역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인공지능 번역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니 문장 선택과 이유 작성은 모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 응답은 익명으로 수집되고 연구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 당신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And Then There Were None)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원서를 포함하여 읽어본 적 있음
 - (2) 한국어 번역본으로 읽어본 적 있음
 - (3)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읽어보진 않았음
 - (4) 전혀 모름
2. 평소에 추리소설(미스터리, 서스펜스 포함)을 얼마나 자주 읽으시나요?
 - (1) 매우 자주
 - (2) 가끔
 - (3) 거의 안 읽음
 - (4) 전혀 안 읽음
3. 다음 중 장면의 분위기나 감정의 흐름이 더 잘 전달된다고 느껴지는 번역문을 고르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A	B	C
베라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아. 여긴 바로 솔져 아일랜드잖아. 그녀는 다시 창가로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바다는 참 넓었다. 이곳에선 어둠을 봐도 육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저녁 햇살 아래 진한하게 일렁이는 푸른 바다만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베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이곳은 언디언 섬이야! 그녀는 다시 창가로 가서 바다를 내다보며 창문 옆에 앉았다. 아, 정말 넓은 바다야! 여기서는 육지의 모습 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단지 오후의 햇살에 반짝이는 환율이 넓고 푸른 바다만이 눈에 들어왔다.	베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여기가 바로 병정 섬이었다! 그녀는 다시 창가로 가서 앉아 바다를 내다보았다. 바다는 얼마나 넓은가! 여기에서는 육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저녁 햇살 속에서 출항하려는 드넓은 푸른 바다만이 있을 뿐이었다.
바다...오늘은 참 고요하지만, 때로는 얼마나 무자비한가. 사람을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바다. 익사... 익사... 채 발견...바다에서 익사...익사... 익사... 익사...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기억하지 말자. 그건... 이미 끝난 일인니까.	바다...오늘은 내무도 평온했다—하지만 가끔씩 거칠어진다...저 깊은 곳까지 우리를 끌어들이는 바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 시체가 발견되었다...바다에서 죽었다...빠져 죽었다...빠져 죽었어...바다에...아니야. 기억해서는 안돼!...생각해서는 안돼! 모든 것은 이미 끝난 일이야.	오늘, 바다는...너무나도 평화롭다. 하지만 바다는 때로 너무나도 잔인하다...사람을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바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발견되어...바다에 빠져... 빠져... 빠져... 아니, 떠올리지 않을 것이었다...그 사건은 결코 생각하지 않으리라! 이미 끝난 일인 것을...

- (1) A (2) B (3) C (4) 모르겠음
- 이유 (예: 감정 전달이 잘 되었다/문장이 자연스러웠다/단어선택이 좋았다 등)

4. 다음 중 문장의 흐름이나 멈춤이 더 긴장감 있게 느껴지는 번역문을 고르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A	B	C
<p>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바람을 샀다. 저게 뭐지? 천장 갈고리에 매달려 있는 건...? 옷가미가 묶인 빗줄. 그리고 그 아래엔 의자 하나. 밧고 올라쓰다가 발로 차기 알맞은 높이와 위치. 그리고, 휴고가 바뀐던 거였지.</p> <p>그리고, 그래. 이런 그 중요한 마지막 구절이기도 했다. "그는 가서 목을 대달았고, 그러자 아무도 남지 않았다."</p>	<p>그녀는 문을 열었다....그리고는 숨을 토크거렸다.... 저건 무엇일까? 천장의 고리에 걸려 있는 저것? 목매달 올라미가 달려 있는 빗줄이잖아? 그리고 올라붙 의자 하나-발로 차버리면 되는 의자...저게 휴고가 원하는 것인가...물론 그것은 그 중요한 마지막 구절이다.</p> <p>그가 목을 때어 죽어서 아무도 없게 되었다....!</p>	<p>그녀는 방문을 열었다.....</p> <p>다음 순간 그녀는 턱 하고 숨을 멈추었다.....</p> <p>천장 갈고리에 놓여진, 저건 대체 뭐한 물건가? 옷가미? 그리고 그 아래 놓여 있는 의자, 저걸 발로 차어 하는 걸까.....</p> <p>이것이 휴고가 바라는 말인가.....</p> <p>그래, 그것이 중요한 마지막 구절이었다.</p> <p>"그가 가서 목을 때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네....."</p>

- (1) A (2) B (3) C (4) 모르겠음

■ 이유

5. 다음 중 반복되는 표현이 인물의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느껴지는 번역문을 고르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해주세요.

A	B	C
<p>"단 결코 당하지 않겠어 난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p> <p>...공경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도대체 권총은 어디로 간 것일까?...누가 가져갔을까?...누가 갖고 있을까?...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지 모두 수색을 당했지. 아무도 권총을 갖고 있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야....."</p> <p>"모두 미쳐 가고 있어. 모두 미쳐 바빌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나도 두려워.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p>	<p>"놈들이 날 함께 들 순 없어 난 내 몸 하나쯤은 지킬 수 있어. 예전에도 위기는 넘겼잖아. 근데 그 권총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거지?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아니야-그건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 다 수색했어. 누구도 갖고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그 위치를 알고 있어."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어....."</p> <p>모두가... 완전히 미쳐버릴 거야. 죽는 게 무서운 거야. 우린 다 죽음이 두려워... 나도 그래. 두렵지... 하지만.....</p> <p>그렇다고 죽음이 오는 걸 막을 순 없지."</p>	<p>니에게 믿어줄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나 자신은 지킬 수 있어.....나는 과거에 이것보다 더 위험한 곳에 들어 보았어.....그런데 도대체 그 권총은 어디에 있지?...누가 갖고 있을까?...누가 가져왔지?...아무에게도 나오지 않았는데-모두 그걸 알고 있어. 우린 모두 쫓아지 뒤 쳐보았으니까..... 아무도 그걸 갖고 있을 수 없어.....하지만 한 사람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p> <p>"저 사람들은 미쳐 가고 있어... 모두를 미쳐 버릴 거야.....죽음을 두려움.....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나도 죽음이 두려워.....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p>

- (1) A (2) B (3) C (4) 모르겠음

■ 이유

6. 위 3~5번 항목에서 제시된 번역문 A, B, C 중 인공지능 번역으로 추정되는 항목이 있었다면 그 문항 번호와 선택지를 알려주시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 문항 번호와 선택지

■ 이유

<부록 2> 전문가 인터뷰 자료

본 인터뷰는 특정 추리소설의 번역본(AI 번역 1 종, 인간 번역 2 종)에 대해 대학생 독자 86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요약 결과와 응답 경향을 참고하셔서 독자로서의 공감 여부와 전문가로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 설문 결과 주요 요약

문장 흐름·긴장감 표현 항목에서는 AI 번역 선호 비율이 59.3%로 가장 높음
감정의 반복적 강조나 내면 묘사 항목에서는 AI 번역 선호도가 다소 낮아짐
인간 번역 간에도 수용자 반응은 일치되지 않음
모든 문항에서 AI 번역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3명(15.1%)

※ 단, 응답자 중 해당 추리소설을 '한국어 번역본으로만 읽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명(7.0%), 나머지 80명(93.0%)은 '읽어본 적 없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함

Part 1. 독자 입장에서 학생 반응에 대한 공감 및 해석

- (1) 문학 독자로서의 본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문장 흐름이나 긴장감 표현 측면에서 AI 번역을 더 선호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2) 감정의 반복 표현에서는 AI 번역 선호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결과에 공감하시나요?
- (3) 전체적으로 약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AI 번역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독자의 어떤 기대 혹은 독서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Part 2. 비평가 입장에서 수용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

- (4) 학생들이 AI 번역을 선호한 항목(문장 흐름, 리듬, 긴장감)은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의 어떤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 (5) 반대로, 인간 번역이 선호된 항목(감정 반복 등)은 어떤 문학적 요소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6) 수용자 반응 결과를 바탕으로, AI 번역은 문학 번역의 어떤 요소에서 특히 장점이거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시나요?

Part 3. 통합적 성찰

- (7) 이와 같은 독자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문학 번역 평가 혹은 번역 교육에 어떤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Stylistic reproduction and reader responses in AI and human translation: A case study of *And Then There Were None*

Yujin Ba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ongguk University (Seoul)

Soonyoung Kim (corresponding author, imksy927@daum.net)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ongguk University (Seoul)

Abstract

Building on Kim Soonyoung's (2025)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stylistic strategies employed by human translators can be reproduced by an AI system, and how differences between human and AI styles are perceived by readers. Focusing on three key scenes in Agatha Christie's *And Then There Were None* where stylistic devices are most pronounced, the research compares two Korean human translations with a ChatGPT-generated version. It employs two research methods—a reader survey and expert interviews—through which the findings are cross-validat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Sentence structure and rhythm were the most favored in the AI translation (52.3%), suggesting that its conciseness and consistency, rooted in statistical learning, enhance readability and convey a sense of urgency. (2) Punctuation and visual pacing were also rated highest in the AI translation (59.3%), indicating that regular and predictable punctuation supports a stable reading flow. (3) Repetition and emphasis still favored the AI translation; however, the human translation remained relatively competitive at 27.9%, demonstrating its ability to capture emotional nuances and aesthetic effects. Experts acknowledge that while AI can effectively reproduce the short breath and rhythm of mystery novels, it struggles to capture subtle emotional nuances, the aesthetic work of repetition, and cohesive discourse. By combining stylistic analysis with reader responses and interview-based expert insights, the study offers nuanced perspectives on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AI in literary translation.

Keywords: AI translation; ChatGPT; literary translation; reader-response studies; suspense translation

키워드: 독자 반응 연구, 문학 번역, 챗GPT, 추리소설 번역, AI 번역

배유진(제1저자)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강사

yujinbae0601@gmail.com

김순영(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imksy927@daum.net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14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15일